

그로벌시대의 한국경제의 과제

李 鍾 勳 / 中央大 總長, 經實聯 共同代表

IMF체제 3년째를 맞아 국내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세계 12위 GDP대국을 달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저물가속에서의 고도성장이라고 하는 미국식 신경제논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성급한 진단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폭락하고 총외채는 증가하며(1,432억달러) 무역흑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투자신탁의 부실에서 촉발된 재벌기업의 위기설이 경제전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우리도 멕시코와 같이 IMF체제 3년째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위기에 휘말리지 않나 하는 징크스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국민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과 구조조정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개혁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종래의 고도성장에서 파생된 거품과 군살을 빼게 되어 생각보다도 빨리 경제회복의 기틀만은 잡게 된 것이 낙관론의 근거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연초부터 4개월 동안 16대 총선이라는 정치행사에 온 나라가 매달려 왔기 때문에 그 개혁과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결과로, 경제불안이 증폭됨으로써 비관론의 실마리를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 개혁과 구조조정の内容과 대상이 환란극복에 초점을 맞춘 나

머지, 직접적인 효과를 노린 금융부문에 편중된 결과 근본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산업부문의 개혁을 도외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IMF체제 극복의 고비라고 하는 3년차의 징크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부진했던 금융부문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완전히 마무리 지어야 하며 나아가서 21세기 신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산업부문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년도 경제전망을 흐리게 하는 조짐으로서 무역수지 흑자의 격감으로 대외경제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년 들어 수출증가율(18.6%)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수입증가율(47.5%)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역수지(2.3억달러 흑자)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곧 국내산업구조의 대외적인 표현인 것이다. 미·일등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이 동남아의 값싼노동력·자원과 결합해 만든 자회사 및 손자회사인 다국적기업의 무국적상품의 국제경쟁력이 강해짐으로써 우리의 수출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시장마저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년간 우리의 산업구조는 경공업이든 중화학공업이든 설비주도형산업인 동시에 수입의존형산업이며 에너지다소비형산업인 하드산업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엄청난 설비와 원료와 원유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했다. 이는 바로 수입을 유

발시켜 무역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해 왔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장치형산업인 하드산업을 R&D 주도형산업이며 성(省)자원형산업과 수출주도형산업인 소프트산업으로 개혁하는 산업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있다. 무역수지의 개선을 일시적인 통상정책과 환율정책의 차원을 넘어, 국내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산업구조의 소프트화를 이룩하려는 신산업정책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특히 종래의 유형자산 중심경제를 이제는 디지털혁명을 통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무형자산인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제의 틀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잠재우고 IMF체제 3년차의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도성장의 달성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없는 개혁의지로 밀고 가야할 것이다. 경제가 고도성장하려면 필연적으로 소비든 투자든 총수요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 경제논리이다. 소비가 늘어나기보다는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상적

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부품과 소재 등 자본재수입(총수입의 45%)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소비재 수입마저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경제성장과 무역수지는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경제성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성장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무역수지흑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반대로 무역수지적자를 증가시켜 지나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IMF체제를 완전히 졸업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실속없는 경제회복이나 무역수지에 매달리지 말고 국내의 경제균형을 잡기 위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꾸준히 그리고 착실히 추진하는 것만이 경제정책의 왕도이기 때문이다.

◎ 우리기업의 경영전략

◆ 21세기 좋은 기업의 3대 조건

- ① 환경변화에 강한 기업
- ② 구조와 조직이 강한 기업
- ③ 무형자산이 강한 기업